

# 남원만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 찾아라

### '고도남원' 설화·명소 상징 콘텐츠 접목 상품 개발 육성 '제1회 남원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온라인 등 접수

"우리가 몰랐던 남원을 관광기념품으로 만나자."  
남원시가 남원만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제1회 남원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포스터>'을 개최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대표 상징 콘텐츠를 접목한 트렌드에 맞는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남원시 관광기념품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신라 때 전국에 설치된 5소경 중 하나로 1300여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

하는 고도(古都) 남원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퍼져 있는 지역이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판소리 동편제가 탄생함은 물론 세기의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에 버금가는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한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야기뿐만 아니라 견우와 직녀, 흥부전 등 무수한 이야기들이 남원으로 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 같은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는 남원시는 이번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남원 이야기'라는 주

제로 남원의 설화나 명소, 두 가지의 소주제 중 하나를 택해 작품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전에 관심있는 전국의 사업체 및 개인은 누구나 접수 가능하고 1인(혹은 1팀)당 1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고 서류 접수와 실물 접수로 진행된다.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사전 접수(서류 접수)한 작품에 한해 2월5일 서울과 남원 2곳에서 현장 접수(실물 접수)가 가능하다.  
남원시 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남원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관광기념품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 고창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20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 지급...교통사고 예방

고창군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고창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한다.  
군은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2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지역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3762명(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만1242명 중 12%를 차지하

고 있다.  
면허 자진반납은 상생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사본과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운전면허 반납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택시 확대운영, 행복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순창군, 설 연휴 '발효소스토크' 무료 개방

순창군이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대표 관광지인 발효소스토크를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개방 기간은 설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다.  
발효소스토크는 군이 2006년 만든 고추장과 된장 등의 저장고로 다양한 콘텐츠를 더해 순창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다.  
이 곳에는 VR 콘텐츠를 비롯한 미디어 체험 공간(사진) 등을 갖추고 있어 남녀노

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군은 설날 연휴 기간 전 발효소스토크를 비롯해 장류 특구단지 모든 시설물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상환실을 운영해 관광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태건 순창군 장류사업소장은 "연휴를 맞아 순창을 찾는 방문객들이 작년보다 변화된 발효소스토크에서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정읍시는 수성주공아파트 사거리 도시 숲 2곳에 곰 조형물과 동그란 모양의 조명 300여개를 설치해 도심 야간경관을 밝혔다. <정읍시 제공>

## 정읍시 도심 야간경관 환해졌다

### 수성동 사거리 곰조형물·LED 조명 300개 설치

정읍시가 주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던 좁고 어두운 도심을 환하게 밝히고 도심 활력 찾기에 나섰다.  
시는 수성주공아파트 사거리 소나무 숲 2곳에 동그란 모양의 조명 300여개와 곰 조형물을 설치해 도심 야간경관을 환히

밝혔다.  
시는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동그란 조형물에 LED 조명을 감아 나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했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이며 연중 운영한다.

특히 주민들이 2.5m의 곰 조형물 앞에 멈춰 사진을 찍는 등 새로운 포토존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 시내와 정읍역, 산업단지를 연결한 나들목인 수성사거리는 그냥 지나치는 길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보게 되는 즐거운 길로 다시 태어났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활력을 주는 도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 정읍동학마라톤

### 내달 23일 개최

### 풀·하프코스 등 4개 코스

정읍시는 다음달 2월23일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정읍동학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정읍동학마라톤대회'는 정읍시 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는 풀·하프 코스, 5km, 10km 등 4개 종목과 10개의 세부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풀코스는 종합경기장을 출발해 내장산 경내를 반환하는 구간으로 전국 달림이들에게 환상의 코스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빠른 속도로 전국 달림이들이 참가 접수를 하고 있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임을 전국에 알리고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만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의 계승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참가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정읍동학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티셔츠와 2만원 상당의 정읍농산물이 제공되고 완주자 전원에게 기념메달도 수여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동학마라톤 대회가 전국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명품대회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2020년 경자년 첫 스타트를 끊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보훈수당 월 3만원씩 지급

익산시는 올해부터 보훈수당을 1만원 인상에 월 3만원씩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그 유가족, 전몰·순직 군경 유가족, 전상·공상 군

경 및 그 배우자, 무공 수훈자 및 그 배우자, 보국수훈자 등이다.  
익산시는 제작된 지 40년이 지난 군경 묘지 비석들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군산시, '농민수당' 신청자 4월까지 접수

군산시가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공익수당' 제도를 마련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농민공익수당을 시행한다며 농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신청대상 기준은 지난 2017년 12월31

일부러 연속해서 전북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전북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4월까지 신청을 받아 5-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농업의 소득, 전북도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9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의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